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생활규칙 24).



2024년 2월 6일 오늘 현지시간 오후 6시에  
브라질의 상 파울로 성 호세의 집에서  
제르뚜르데스 마리아 살레테 듀즈 수녀님이  
80세 61년 수도생활을 마치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은 제르뚜르데스 수녀님이 이 지상 여정에서 품고 있었던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어제 신앙심과 평온한 마음으로 천상 탄일을 맞이하며 이룬 꿈입니다.

수녀님은 1944년 2월 5일 브라질의 파군데스 바렐라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944년 12월 15일 파군데스 바렐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녀원 입회는 1959년 1월 6일 카시아스 도 술로 하였고, 1962년 2월 1일 카시아스 도 술에서 수련기를 시작하여 1963년 2월 2일 수도명 마리아 살레테로 첫서원을 하였습니다.

첫서원 후 1963년 파르테온의 포르토 알레그레와 1967년 상파울로의 자바케라 거룩한 목자 학교에서 사목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1968년 2월 2일 카시아스 도 술에서 종신서원을 하고 아래의 공동체에서 사목 사명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교리와 전례와 의료 사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68년 상 파울로의 자르딘, 1971년 상파울로의 라파르도, 1974년 다시 자르딘에서, 그리고 1979년 상파울로의 라파에서는 면학을 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982년 자르딘에서 지내고, 1985년 라파로 돌아와 성소 담당자를 하였습니다. 1988년 상파울로의 산토스 아포스토로스 공동체로 이동하고, 1989년 라파, 1993년 세일란디아에서 성소 사목에 헌신합니다.

1997년 관구 경제 담당으로 임명되어 라파이 알토 관구에서 지냈습니다. 2001년 경제 담당을 마치고 고 자바케라 학교에서 재무 관리를 수행합니다. 2004년 자르딘 공동체서 지내고 2007년 상파울로의 성 호세 집에서 투병중인 자매들을 열정적으로 돌보며 다양한 일을 하였습니다. 2009년 자르딘 공동체로 돌아왔다가 2010년 레템사이오 도 아라과이아로 선교를 갑니다. 2018년 성 호세의 집으로 돌아 온후 2020년 야타이로 선교를 갑니다. 레템사이오와 야타이 두 곳에서는 교구 법원에서 일하였습니다.

2022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상파울로 관구로 다시 들어왔다가 2023년 11월에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위하여 성 호세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제르뚜르데스 수녀님은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받은 선물을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며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준 자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하였으며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형제적 공동체 생활을 잘 하였고 운전 같이 다양한 봉사예 헌신하였습니다.

전례를 사랑하고 선교에 있어서 용기가 있었습니다. 의료 분야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수도회에서는 간호학에 관한 다양한 공부를 하도록 권고하였고, 다양한 본당에서 의료 사목을 실현하고 수도회의 아픈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주교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수녀님이 전 생애 동안 찾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이 선포한 대로 하느님을 보지 않고도 믿은 수녀님께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수녀님은 ‘나는 나의 여정을 끝마쳤고, 잘 싸웠고, 신앙을 간직하였으며 상급을 받을 일밖에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빠스또렐레의 자르담에서 청원자였을 때 제르뚜르데스 수녀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함께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녀님의 전 생애는 사명에 한계 없이 투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수녀님의 하늘색 눈동자는 당신이 사랑하신 하느님의 얼굴을 관상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따스하게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수녀님이 투병생활 할 때 사랑과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신 수녀님들과 의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르뚜르데스 수녀님을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수녀님이 무상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봉사했던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 성소의 선물을 주시도록 중재 기도를 해 달라고 청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복자 비오 9세 교황 기념일에  
비엘라에서

총원장 아민따 사르미엔토 푸엔테스